

온택트 기반의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형성

사업책임자

박상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교수, 통일의학센터 부소장)

사업참여자

문진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통일의학센터 소장)

전지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최소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 목 차 >

I. 온택트 기반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형성

1. 사업 소개
2. 제18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3. 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느 열린강좌
4. 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II. 교육 사업 만족도평가 분석

1. 통일의료 교육 정량평가: 일반사항, 강좌 만족도 등
2. 통일의료 교육 정성평가: 강좌 장단점, 논의 등
3. 추후 강의 주제

III. 통일의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1. 사업 성과
2. 사업 평가

I. 온택트 기반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형성

1. 사업 소개

1) 사업 배경

그간 통일의료(統一醫療) 개념에 대한 정의는 뚜렷하게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이나 통일 보건의료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다.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2014년부터 이어온 교육 사업 및 다수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문헌을 참고하여,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 ‘협의’의 통일의료: 남북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활동
- ❖ ‘광의’의 통일의료: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통합을 위한 범분야의 임상 및 연구, 정책 제안 활동

협의와 광의의 통일의료 개념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본 분야는 특정 학문에 국한되지 않으나 전문적인 시각의 다학제간 협력이 필요하기에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통일·평화 시대를 이끌어 갈 전문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안고 통일의학센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중 하나로 ‘온택트 기반의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이란 사업명으로 예산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내·외부 환경분석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온라인 학습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띄고 진행한 통일의학센터는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와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아카데미’를 통해 명실상부한 통일의료 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 사업 목적

통일의학센터는 통일의료 연구 및 교육 사업 전문 기관으로 보건의료 외 다 분야와 접목한 언택트(Untact) 시대의 온택트(Ontact) 환경을 조성하여 통일의료 인적자원 개발을 이룩하고 일반 대중, 보건의료 및 분야 전문가, 학계, 민간단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지식 공유와 네트워크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 세계적 감염병의 위기로 지속적인 교육과 세미나 마련이 어려운 현 시점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통

일의료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 꾸준한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인적자원개발을 꾀하고자 한다.

3) 사업 추진 일정

사 업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일 기반 구축 사업	1.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2.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3. 통일의료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2021년 통일의학센터의 온택트 기반의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형성 사업은 위와 같이 총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연 2회),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연 1회, 2주), 통일의료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연중 상시)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정기 교육 강좌 사업인 열린강좌와 아카데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제18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1) 강좌 목표

2018년 이뤄진 통일국민협약 등을 바탕으로 통일 관련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연구자 및 통일의료에 관심을 지닌 일반 대중과 대학(원)생,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본 강의 후,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2) 강좌 개요

- 교육 대상: 통일의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일반 대중과 실무자 및 연구자
- 교육 일시: 2021년 5월 14일 (금) 15:00~17:00
- 교육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촬영스튜디오
- 교육 주제: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는 남북 보건의료협력 방안
- 교육 평가: 교육생 강좌 만족도평가 (객관식/주관식)

- 교육 비용: 무료
- 교육 운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통일의학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3) 강좌 주요 특징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를 쉽게 홍보하기 위해 축약하여 ‘통통統通 열린강좌’로 명명하고 이를 주축으로 관련 기관과 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에 홍보하였다.

제18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는 통일의료 사회적 합의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민 의식조사 수행 관계자 총 2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를 진행한 후, 자유로운 오픈 토론이 이뤄지도록 구성하였다.

4) 강좌 세부 프로그램

강 의 명	강 사 진
통일의료 공론화 방안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김춘석 본부장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서울시민 의식조사와 남북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필요성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5) 강좌 내용

(1) 세션1: 공론화 기법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통일 관련 인식

○ 속의민주주의와 공론화

- 속의민주주의는 현대민주주의가 지닌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확장적 의미의 민주주의로,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이성적 토의(Reasoned Discussion)를 결부시켜, 변환(Transformation)을 추구함
- 즉, 속의민주주의는 민주정치에서 타당성 있는 합의와 결정을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회복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음
- 속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광범위한 이해(Broad-based Understanding)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책 증거(Evidence Policy)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을 집행



그림 1 속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두 가지 경로(출처: 제18회 통통 열린강좌 강의록)

- 공론화 기법에 대한 이해
 -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론수렴의 방안은 정보제공, 의견수렴, 자문협회, 공동결정, 시민결정 등이 있음
 - * 정보제공: 정보공개, 공람공고, 정책홍보, 설명회
 - * 의견수렴: 공청회, 진정(陳情), 민원(民願), 여론조사, 공론조사
 - * 자문협회: Policy Dialogue, 자문위원회, 협의기구, 합의회의
 - * 공동결정: Negotiated Rule Making, Collaborative Planning, 공동조사
 - * 시민결정: 주민투표, 국민투표, 시민배심제, (여론조사, 공론조사)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요 및 성과
 - (사업 배경) 복합적인 남북갈등의 해법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국민과 시민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자 함
 - (사업 경과) 2020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전국 시민참가단의 합의로 통일국민협약 기초안 마련, 한반도 미래상·실현의 과정과 방법·지속성 확보방안의 3분류로 나뉜 63개 문안 도출
- 통일연구원 통일인식조사를 통한 통일에 대한 인식(2018~2020년)
 -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년 감소하여 60% 수준으로, 특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 낮음

- 통일이 대한민국 국익에 얼마나 이바지 할 것인지, 개인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0%를 상회하나,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0% 수준임
- 한국이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94%는 무조건적으로나 조건적 상황에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의려지원에 대한 적극 반대는 6%에 불과함
- 통일의학센터와 한국리서치 공동 조사의 통일의료 인식
 - 평소 통일에 대한 의견으로, 국민의 47%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53%는 현상유지 또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030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음
 - 북한 지원이 중요하냐는 응답에 대해 52%는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48%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팽팽한 결과를 보임
 - 북한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파악으론 응답자 4명 중 3명이 북한 보건의료 현황을 모른다고 답했으나, 북한 보건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평균 84%로 관련 응답이 모든 연령대에서 80%를 상회함

(2) 세션2: 서울시민 의식조사와 남북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필요성

○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

- 북한 보건의료 등 인도적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2020년 53.1%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우선지원 분야로는 응급의료품과 결핵치료제 등 의료지원이 2019년에 이어 1순위 지원 분야로 선택받았음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우선 순위는 2020년 기준, 경제·산업, 사회문화교류, 통일문화조성, 보건, 도시인프라, 농업으로 나타남

○ 남북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필요성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에는 정부·지자체·민간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음



그림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의 주체(출처: 제18회 통통 열린강좌 강의록)

- 서울시는 1999년 제1기(1998년 DJ정부 대북화해협력정책), 2010년 제2기(2010년 5월 24일 남북교류 전면 중단), 2018년 제3기(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및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교류 재개)의 체계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협력 방안 주요 과제
 - (보건의료) 감염병 공동대응,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협력
 - * 서울시 대북 보건의료지원 실적은 총 8건으로 31억 8400만 원(2006~2020년)이며, 2020년 UNICEF를 통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2007~2009년 평양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 지원, 2006~2007년 북한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등임

사례 1. 보건의료등인도지원

의약품 등 인도지원 모니터링 실시(2018. 10. 24 ~ 10. 27.)

정성제약종합공장 및 류경 치과병원



✓ 주사약품공장 전경

✓ 갱년기알약 등 생산약품들

✓ 류경 치과병원내 치공사들

금성 식료품 공장(밀가루지원현장)



✓ 공장 전경

✓ 기계화 시설 및 근로자

✓ 생산제품 및 시식

16

그림 3 서울시 보건의료 분야 남북 협력 사례(출처: 제18회 통통 열린강좌 강의록)

- (환경) 대동강 수질개선 공동 협력체계 강화와 평양 상하수도 개량 지원
- (문화) 올림픽 공동유치, 서울-평양 협력위원회 구성 등 체육교류
- (관광) 서울-평양 간 관광루트 개척 등 개별관광 추진
- (기타) 문화·역사·학술 교류로 서울시향·북측·프랑스 관현악단 협연 및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발굴 등

6) 강좌 결과

(1) 제18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장점

다음의 표는 제18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관련 질문은 ‘본 강좌의 어떤 측면이 가장 도움 되었습니까?’이었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제18회	- 통일의료 인식 개선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p>신 점이 인상깊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내용이 유익합니다. - 대학생들이 진로 설정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인데 통일과 보건의료를 함께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관련 소식을 열린강좌를 통해 꾸준히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 북한과 남한의 면역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새로운 시각이 특히 인상 깊었으며, 이와 더불어 공론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배움으로써 통일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짐은 물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단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의료를 시작으로 통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느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꼭 의료 전공자들이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통일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지식의 전달과 사전 질문을 통한 답변이 좋았습니다. - 평소 통일에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 앞선 2020년 강좌부터 이어서 다양한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도움이 되었고, 각 연사 분들의 다양한 시각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통일의학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있는 강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	---

표 1 제18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장점

(2) 제18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단점

다음의 표는 제18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관련 질문은 ‘본 강좌 또는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제18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가 아니어서 접속 및 관리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혼자서 강연하는 것 말고도 여러 연자가 서로 대담을 하는 시간 등을 마련해 다양한 관점을 교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불편한 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활용해주신 점은 너무 좋았으나, zoom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추후 질문자들도 육성으로 발표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녁 시간대로의 변경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일의료와 관련해 더 다양한 주제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강좌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

표 2 제18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단점

(3) 제18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추후 기획

다음의 표는 제18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관련 질문은 ‘추후 수강을 원하는 강의 주제가 있다면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제18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과 보건의료 중에서 이번 강연이 통일에 좀 더 중점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보건의료의 역할이나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 북한의 감염병 실태(통계, 대비대응 수준 등)가 궁금합니다. - 통일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실행 방안 및 구체적 전략 모색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술, 시설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흥미로울거 같습니다. - 최근 통일의학 관련 이슈 연구 진행 사항과 정책적 지원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강의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 3 제18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추후 기획

(4) 제18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사진



그림 4 제18회 열린강좌 포스터



그림 5 제18회 열린강좌 현장스케치

3. 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1) 강좌 목표

통일의료 분야와 관련한 공감대 형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에, 이러한 현재 이슈에 대한 학계 차원의 노력과 미래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다룰 수 있는 분야인 보건의료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글로벌한 시각으로 북한 보건의료 현실과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 정책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2) 강좌 개요

- 교육 대상: 통일의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일반 대중과 실무자 및 연구자
- 교육 일시: 2021년 11월 5일 (금) 15:00~17:00
- 교육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촬영스튜디오
- 교육 주제: 멀고도 가까운 미래, 남북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준비

- 교육 평가: 교육생 강좌 만족도평가 (객관식/주관식)
- 교육 비용: 무료
- 교육 운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3) 강좌 주요 특징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를 쉽게 홍보하기 위해 축약하여 ‘통통統通 열린강좌’로 명명하고 이를 주축으로 관련 기관과 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공식 채널에 홍보하였다.

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는 통일국민협약 중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했던 전문가와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다섯 가지 제안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를 각각 강사로 초빙하여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를 진행한 후, 자유로운 오픈 토론이 이뤄지도록 구성하였다.

4) 강좌 세부 프로그램

강 의 명	강 사 진
통일의료의 현 주소 - 남북 보건의료협력 공감대 형성의 아젠다	신좌섭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가올 미래 -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구성	이채정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5) 강좌 내용

(1) 세션1: 남북 보건의료협력 공감대 형성의 아젠다

○ 통일국민협약 사례 소개

- 2018년 11월, 보수·진보·중도·종교계를 포괄하는 평화와 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구성하여 통일부 후원 하 4년간 사회적 대화 시행



그림 6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출처: 제19회 통통 열린강좌 강의록)

- 위 사회적 대화의 특성으로 ①정부와 전문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았으며, ②이해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고 논의과정을 경험, ③숙의성을 충분히 보장하여, ④고도의 합의 형성 절차를 거쳤고, ⑤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제도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임

○ 사회적 대화의 조건

- 사업단계와 임무로 다학제 추진팀을 구성하고 의제를 설정하며 사회적 대화의 프로세스를 조직함

단계	1. 초대/참여	2. 기본정보	3. 대화/토론	4. 합의/조정	5. 결과정리	6. 평가
임무	샘플링/초대 동의 획득 사명감 고취	다양한 입장 편향 방지 의문 해소	효과적인 절차 수평적 참여 심층 대화	합의수준 확인 합의안 조정 대안 모색	결과 정리 다음 단계 계획	과정평가 결과평가 성찰과 축하

그림 7 사회적 대화의 프로세스(출처: 제19회 통통 열린강좌 강의록)

- 대화와 토론은 절대적 중립의 숙련된 퍼실리테이터 하에서 모든 참가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창의적 발상을 토대로 이뤄짐
-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세대, 학력, 정치적 입장을 넘어선 수평적 토론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결과물은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합의로서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결과물 도출이 목표였음

○ 남북 보건의료협력 공감대 형성 의제

- (남한 내 공감대 형성 의제) 이념과 세대를 넘어선 대화의 장을 형성하여 다양한 입장을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의 목적
- * 의제로써 다룰 내용: 보건의료협력의 원칙, 인력과 시스템 및 시설/장비/의약품 지원과 교류, 긴급대처, 협력의 일관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 (남북교류 증대에 관련된 의제) 남북 교류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
- * 의제로써 다룰 내용: 남한 감염병의 북한 유입, 북한 감염병의 남한 유입, 인수 공통질환 및 환경/수질오염/폐기물 등 공통 과제, 의약품과 기자재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관리, 상호 방문자 응급상황에 대한 원칙 등
- (통일 후 보건의료체제 구상 의제) 통일 후 바람직한 보건의료체제 설계를 위해 남한 체제의 확대 적용이 아닌, 새로운 건설적 체제 구상의 목적
- * 의제로써 다룰 내용: Six Building Blocks(WHO, 서비스 전달체계/보건인력/보건정보/의약품과 기술/재정/리더십과 거버넌스), 남북 보건의료체제의 강점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체제 수립 방안 도출(Appreciative Inquiry)
- 접근방법의 예로, 전략기획 프로세스와 긍정중심 프로세스 제시

(2) 세션2: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구성

○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의 의의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남북한 관계가 변화하였으며, 남한-북한-미국의 선호가 일치할 초점(Focal Point)이 존재하는 상황
- 기존 한반도 미래 관련 연구는 대립과 통일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만 다루어진 한계가 있으며,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논의에 있어 장기적인 ‘미래’시각이 결여됨
- 현재 남북한이 적대국가 관계에서 바로 통일로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기에 통일 정책은 보다 점진적이며 단계적 접근을 요함

○ 한반도 미래 공론조사 설계

- 남북한 통합을 전제로 구성된 6개 시나리오 중 국민이 ①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능미래), ②선호하는 미래(선호미래), ③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회피미래)를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 분임토의, 전체토론 등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

○ 남북한 통합의 구성 요소

- 통일에 이르기 위한 분야별 통합을 네 가지로 나누어 해당 기준이 완전 만족될 때 통일(Unification)이라 정의

- * 군사·외교 통합: 한 국가의 군사·외교 정책이 단일 행위자(Unitary Actor)처럼 움직임을 의미
 - * 이동·거주의 자유 보장: 이동의 자유는 비자(VISA) 면제로 판단하며, 거주의 자유는 타 국가로의 이주(Immigration)의 자유를 의미
 - * 화폐 통합(경제 통합): 통합된 중앙은행 창설로 단일 화폐를 사용함을 의미
 - * 행정부 통합: 가장 높은 단계의 통합으로 통일의 핵심을 의미
- 국회미래연구원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남북한 통합 유형						
관계 유형	예시	군사·외교 통합	이동·거주 자유	화폐 통합	행정부 통합	
남-북 별개국가	① 경쟁 국가	중국-대만	×	×	×	×
	② 우호 국가	미국-캐나다	×	△	×	×
	③ 경제통합국가	독일-오스트리아	×	○	○	×
남-북 통일국가	④ 군사·외교 통합 국가	중국-홍콩	○	×	×	×
	⑤ 느슨한 연방국가	초기 미국	○	△(○)	△(○)	△
	⑥ 연방 국가	통일 독일	○	○	○	○

× 미달성, △ 일부만 달성, ○ 달성

그림 8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출처: 제19회 통통 열린강좌 강의록)

- 위에서 제시한 표에 따라 남북한 통합의 유형을 경쟁국가, 우호국가, 경제통합국가, 군사·외교통합국가, 느슨한 연방국가, 연방국가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해당 시나리오별 분석 진행
- 국민이 선택한 한반도의 미래

[국민이 선택한 2030년과 2050년 한반도의 미래]

시점	미래유형	남·북한 관계	군사·외교 통합	이동·거주 자유	화폐 통합	행정부 통합
2030년	가능미래	우호국가(45.2%)	×	△	×	×
	선호미래	우호국가(29.3%)	×	△	×	×
	회피미래	경쟁국가(58.6%)	×	×	×	×
2050년	가능미래	연방국가(32.1%)	○	○	○	○
	선호미래	연방국가(49.3%)	○	○	○	○
	회피미래	경쟁국가(70.3%)	×	×	×	×

그림 9 국민이 선택한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출처: 제19회 통통 열린강좌 강의록)

- 남북한의 관계는 현재의 적대국가 관계에서 2030년엔 우호국가 관계를 거쳐 3050년엔 연방국가 관계에 도달하는 구조
 - 2030년엔 남북이 미국-캐나다와 같은 우호국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2030년 기준 회피 미래는 중국-대만과 같은 경쟁국가 관계였음
 - 2050년 남북은 통일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남한 중심의 통일을 달성한 연방국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2050년 기준 회피 미래는 마찬가지로 중국-대만과 같은 경쟁국가 관계임
 - 2030년 선호미래는 10~20대와 30~40대는 우호국가를, 50대 이상은 경제 통합국가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하였고, 2050년 가능미래로 10~20대는 경제통합국가, 30~40대는 느슨한 연방국가, 50대 이상은 연방국가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하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남북한 통합 유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
- 한반도 미래 공론조사의 의미
- 기존 국민 통일 선호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안과 설문조사에 국민이 수동적으로 대답했다면, 국회미래연구원은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복수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가장 선호 또는 회피하는지 속의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파악함

6) 강좌 결과

(1) 제19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장점

다음의 표는 제19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관련 질문은 ‘본 강좌의 어떤 측면이 가장 도움 되었습니까?’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숨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통일 보건의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미래 대비책에 대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 통일 보건 의료의 현주소를 아는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나아가야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 남북 간의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통일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 통일의학에 관한 현 상황과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재밌었습니다. - 통일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 참여하지 못한 사회적 대화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방향과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목적과 의도를 잘 알 수 있었고, 공감대 형성 부분도 좋았습니다. -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통일 후 의료 자원의 배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남북 건강공동체에 대해서 전염병 유입이나 인수공통전염병, 의약품 정보교류 등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통일의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도움이 됐습니다.

표 4 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장점

(2) 제19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단점

다음의 표는 제19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관련 질문은 ‘본 강좌 또는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p>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으로만 방송이 송출되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 생방송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활용해주시면 더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강좌가 아니라 공감대에 국한된 부분이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 없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는 이번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강좌를 통해 처음 접하였는데 끊임이나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강의를 듣는 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표 5 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단점

(3) 제19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추후 기획

다음의 표는 제19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관련 질문은 ‘추후 수강을 원하는 강의 주제가 있다면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p>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학 관련 강의나, 통일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 등의 강의를 꾸준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구체적인 남북보건의료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문적인 강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같은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와 질병 내용도 궁금합니다.

표 6 제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추후 기획

(4) 제19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사진



그림 10 제19회 열린강좌 포스터



그림 11 제19회 열린강좌 현장스케치

4. 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1) 강좌 목표

근래 많은 기사와 관심을 이끌어 낸 접경지역 관련 연구에 대한 기획으로, 국내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례 및 접경지역 내 보건의료 농업·영양·법·연구법·환경 등의 분야별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좌를 기획하였다. 또한, 온택트 기반의 인적자원개발이란 본 사업 취지에 맞춰,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 온라인 태널을 적극 활용한 강의 구성과 함께 상호 네트워킹을 위해 열린 질문의 장을 형성, 세션별 전문가 강의 후 이뤄진 만족도평가 내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강의 후에도 관련 주제에 대해 폭넓게 고찰 가능한 기획을 제공하였다.

2) 강좌 개요

- 교육 대상: 통일의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관련

실무자와 연구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

- 교육 일시: 2021년 8월 6 ~ 13일 (금) 14:00~17:00
- 교육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촬영스튜디오
- 교육 주제: 접경지역으로 남북을 잇다 - 통일의료 협력 방안의 패러다임 전환
- 교육 평가: 교육생 강좌 만족도평가(객관식/주관식), 교육생 개별 피드백
- 교육 비용: 무료
- 교육 운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교육 특전: 수료 기준 충족 시 통일의학센터 소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참가 신청: 115명
- 수료 기준: 2주에 걸친 강의의 총 6개 세션 중 각 주의 2개 세션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고, 매주 진행된 만족도평가 및 주관식 질문 6개 중 4개 이상 참여 필수

3) 강좌 주요 특징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를 쉽게 홍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강좌 브랜드화를 위해 ‘통보리 아카데미’로 명명하고 이를 주축으로 관련 기관과 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하였다.

통일의학센터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열린강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통일의료 강좌를 구성하고자 보다 전문적인 내용의 아카데미를 구성하였다. 수강자들은 사전 제공된 전문 강사진의 주제별 논문을 미리 읽고 분석한 후, 전문가 강의 및 만족도평가의 주관식 질문을 통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4) 강좌 세부 프로그램

2021년 8월 6일 (금)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05	Opening
14:05~15:00	[총론]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준비 강연자: 박상민 부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15:05~16:00	[농생명] 남북 농생명 분야 연구 및 교류협력 방안 강연자: 허성기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6:05~17:00	[영양] 남북 영양건강 분야 연구 및 교류협력 방안 강연자: 이수경 교수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1년 8월 13일 (금)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05	Opening
14:05~15:00	[법] 남북 검역 협력에 관한 법제도화 방안 강연자: 이윤현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15:05~16:00	[개발]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강연자: 김갑삼 박사 (KT 자산운용팀)
16:05~17:00	[환경] 접경지역 이후, 환경보건 이슈를 통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강연자: 김현 교수 (University of Minnesota)

5) 강좌 결과

(1) 2021 통보리 아카데미 총평

2021 통보리 아카데미는 북한 및 통일의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별 주제를 고민하던 중,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쉽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현 시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 교류 단절 시기에도 준비할 수 있는 남북 접경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기수강자들의 만족도평가 내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 및 기획하였다. 이번 연도의 아카데미는 예년과 같이 2주에 걸쳐 장기 교육으로 기획함에 따라 수강자들에게 심도있는 통일의료 강의 제공이 가능하였다. 추후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관련 분야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온택트 기반 환경에 맞춘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춰, 각 분야 보건의료 관련 혹은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6회)를 진행하고 주차별 만족도평가(2회)를 실행하였다. 온라인 강의 도입을 통해 만족도평가의 주관식 문항으로 수강자 개개인들로 하여금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카데미 수강 후에도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며 관련 주제에 대해 폭넓은 고찰이 가능한 기회를 만들었다. 2021 통보리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평가 분석 내용은 다음 표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2) 2021 통보리 아카데미 강의안



그림 12 (세션 1) 총론



허 성 기

(전)국립식량과학원/(현)서울대 객원교수
2021. 8. 6

그림 13 (세션 2) 농업



그림 14 (세션 3) 영양



그림 15 (세션 4) 법



그림 16 (세션 5) 접경지역



그림 17 (세션 6) 환경보건

II. 교육 사업 만족도평가 분석

본 장에서는 위에서 다루었던 2021년의 제18~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와 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강의를 수강하였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 만족도평가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만족도평가는 정량 및 정성 평가로 구성되며 해당 결과를 통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군, 강좌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 가능하다. 아래 결과는 2021년 진행되었던 2회의 열린강좌와 1회 2주 구성의 아카데미 관련 응답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 통일의료 교육 정량평가: 일반사항, 강좌 만족도 등

1) 일반사항

(1)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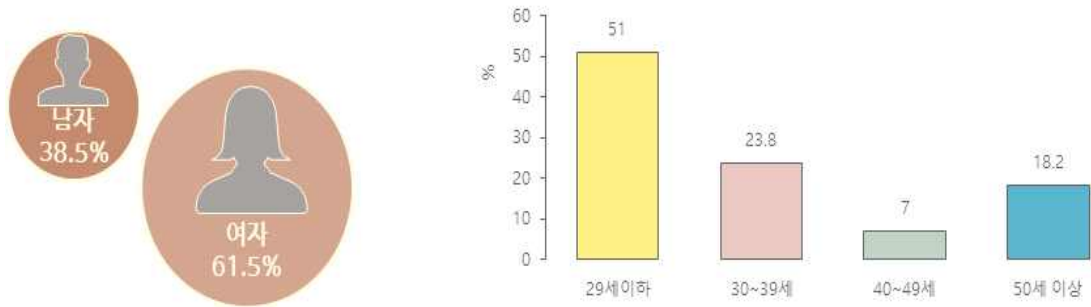


그림 18 성별 연령별 분포

2021년 통통 열린강좌와 통보리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한 만족도 평가 응답자들은 총 143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38.5%, 여성이 61.5%였으며, 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29세 이하(51.0%), 30~39세(23.8%), 50세 이상(18.2%), 40~49세(7.0%)로 29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2) 지역 분포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55.9%, 경기 11.9%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역은 0.7~4.9%로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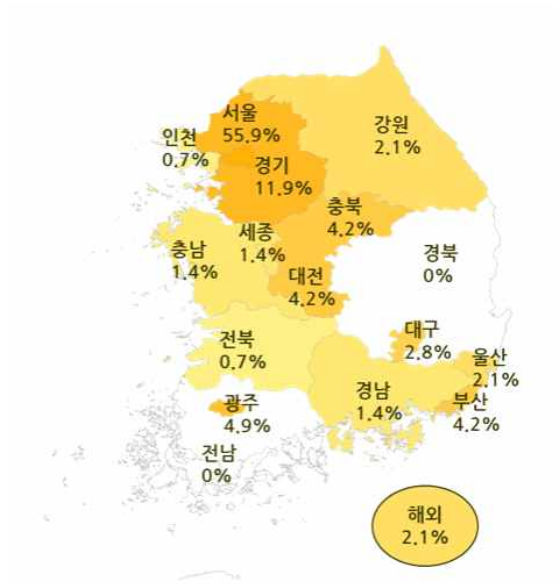


그림 19 지역 분포

(3) 직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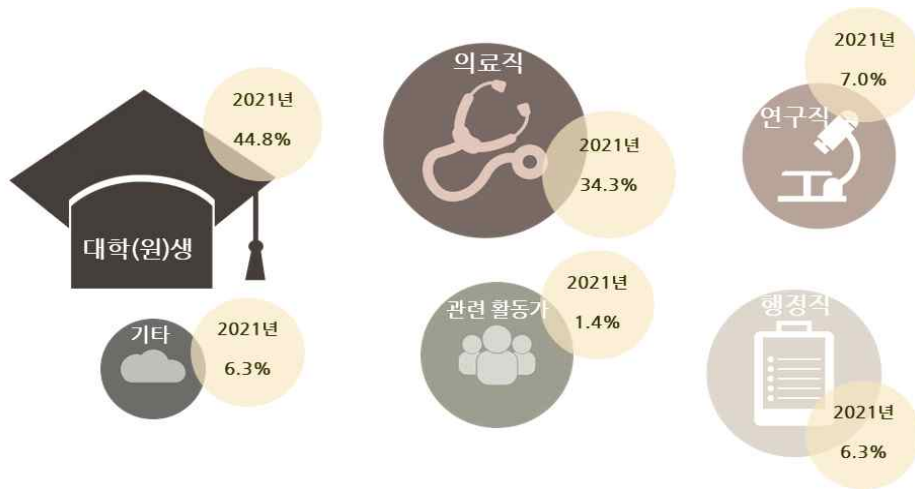


그림 20 직군 분포

응답자의 직군은 대학(원)생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직(34.3%), 연구직(7.0%), 행정직(6.3%), 기타(6.3%), 관련 활동가(1.4%) 순으로 많았다.

2) 강좌 만족도: 강좌 기획

2021년 운영한 제18~19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와 2021 리더십 아카데미 강의 중 정량평가 관련 강좌 만족도 질문은 12개이며 총 4개

부문(강좌 기획, 매체/환경, 교육 성과, 종합 평가)으로 이뤄졌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연번	문항
강좌 기획	
1	본 강의는 교육목표달성에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까?
2	본 과정은 해당 통일 보건의료 및 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체/환경	
3	교재 등 교육자료는 강의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	강의장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교육 성과	
5	본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성 또는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본 과정은 통일 보건의료 및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평가	
7	이번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하십니까?

표 7 통일의학센터 강좌 만족도평가 질문 항목

응답자는 1~5점 척도로 5점(매우 그렇다)부터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선택이 가능했으며 전체 열린강좌와 아카데미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1) 강의 구성의 교육목표 달성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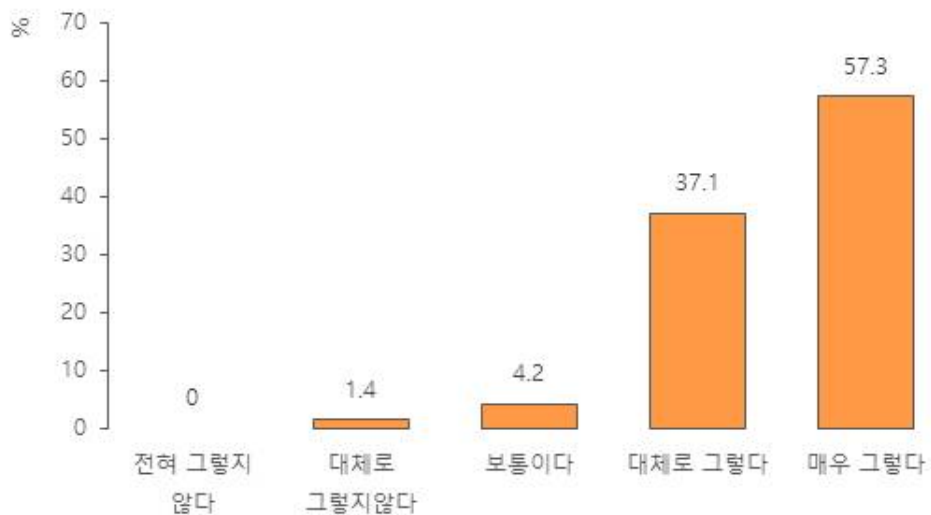


그림 21 강의 구성의 교육목표 달성 적절성

2021년 강의 구성의 교육목표 달성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57.3%), 대체로 그렇다(37.1%), 보통이다(4.2%), 대체로 그렇지 않다(1.4%) 순이었다. 강의 구성이 교육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4.4%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1.4% 보다 상당히 높았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강의 구성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강의 내용 적정 수준 난이도



그림 22 강의 내용 적정 수준 난이도

강의 내용이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42.7%)와 ‘매우 그렇다’(53.2%))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95.9%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에 비해 95.2%p 높게 나타났으며, 강의 내용은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강사의 전달력

강사는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대체로 그렇다’(36.4%)와 ‘매우 그렇다’(57.3%))고 응답한 비율은 93.7%였으며, 강사의 교육내용은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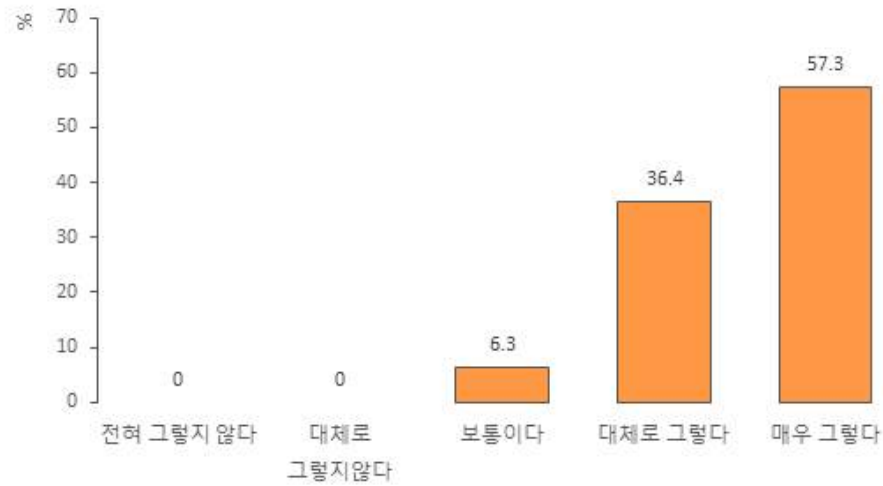


그림 23 강사의 전달력

(4) 통일 보건의료 산업과의 연관성

본 과정은 해당 통일 보건의료 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응답자의 92.3%(‘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2021년 강좌들이 통일 보건의료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통일 보건의료 산업과의 연관성

(5) 강의 방법의 적절성

2021년 통통 열린강좌와 통보리 아카데미 교육의 강의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93.7%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

함으로써 2021년 교육 강좌들의 강의 방법 만족도는 높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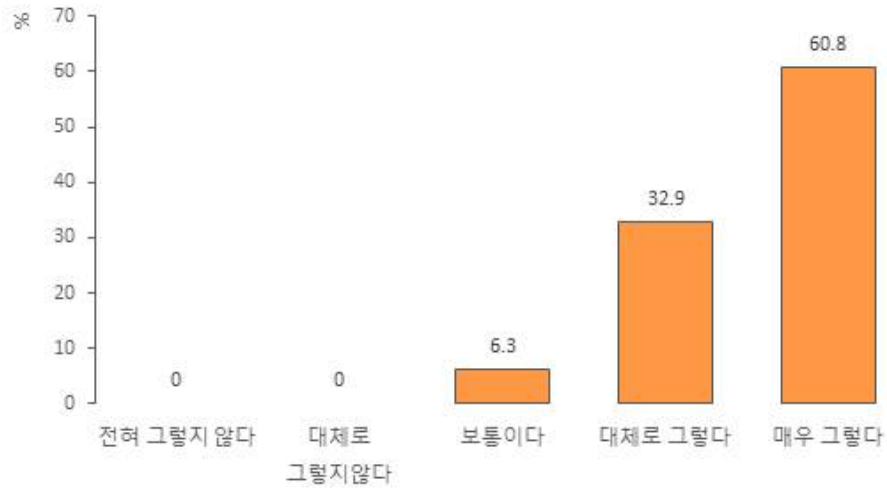


그림 25 강의 방법의 적절성

(6) 강의 시간의 적절성

강좌들의 강의 시간은 적절했는지는 91.6%(‘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2021년 통통 열린강좌와 통보리 아카데미 교육 강의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강의 방법 만족도와 더불어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26 강의 시간의 적절성

3) 강좌 만족도: 매체 및 환경

(1) 교육 자료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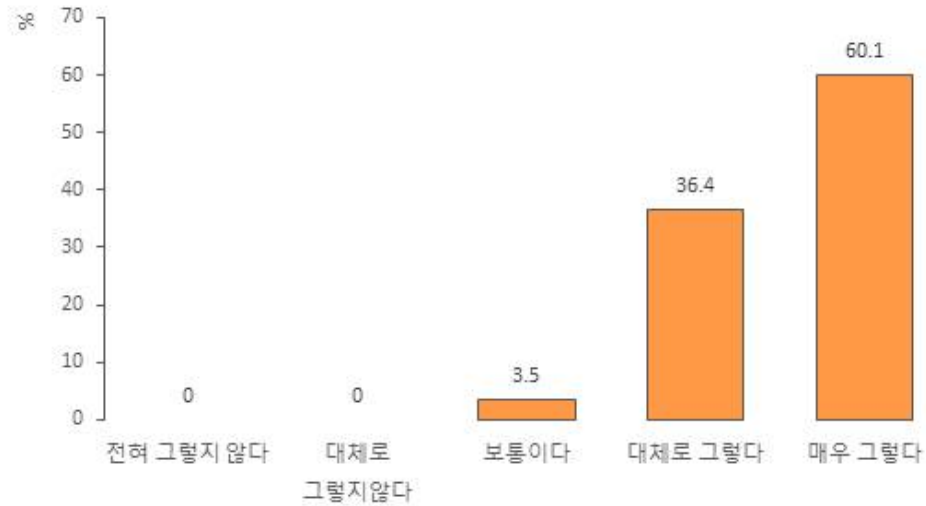


그림 27 교육 자료 도움 정도

교재 등 교육 자료는 강의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96.5%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의 대상자는 교육 자료가 강의 내용 이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온라인 강의 환경 도움 정도



그림 28 온라인 강의 환경 도움 정도

2021년 강좌들의 온라인 강의 환경은 92.3%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적으로 2021년 온라인 강의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환경 기술적인 부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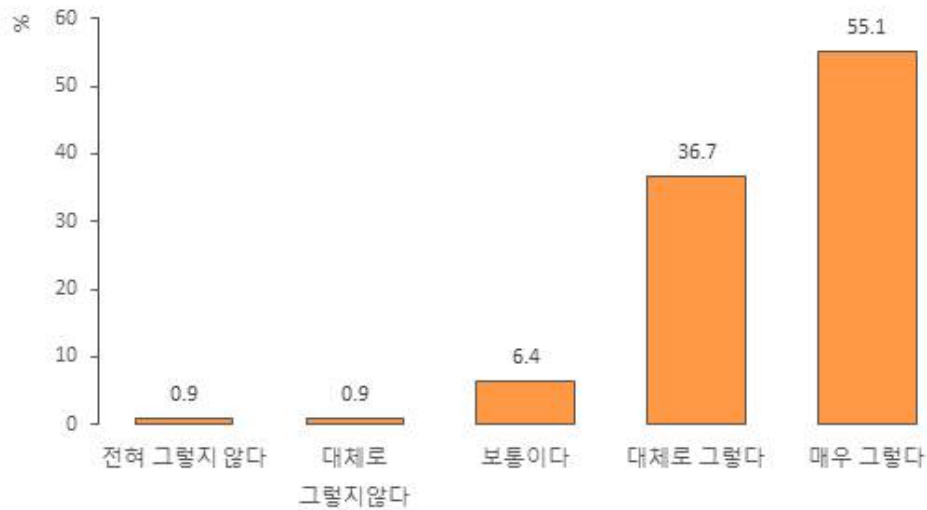


그림 29 환경 기술적인 부분 만족도

2021년 강좌들의 화면 형태 및 음량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만족했는지에 대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91.8%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에 비율은 90.0%p 높게 나타났다.

4) 강좌 만족도: 교육 성과

(1) 전문성 또는 역량 향상

2021년 강좌 이수를 통해 전문성 또는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89.5%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전문성 또는 역량 향상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10.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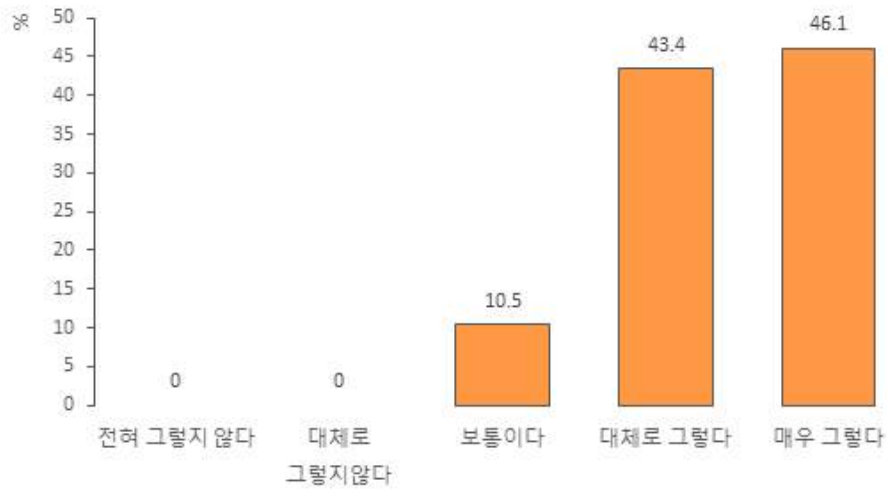


그림 30 전문성 또는 역량 향상

(2) 통일 보건의료 및 사회발전 도움



그림 31 통일 보건의료 및 사회발전 도움

2021년 강좌 과정이 통일 보건의료 및 사회발전에 93.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2021년 대다수의 교육 대상자는 강좌들이 통일의료 및 사회발전을 위한 도움 정도가 높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강좌 만족도: 종합 평가

(1) 강좌 종합 평가

2021년 강좌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한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93.0%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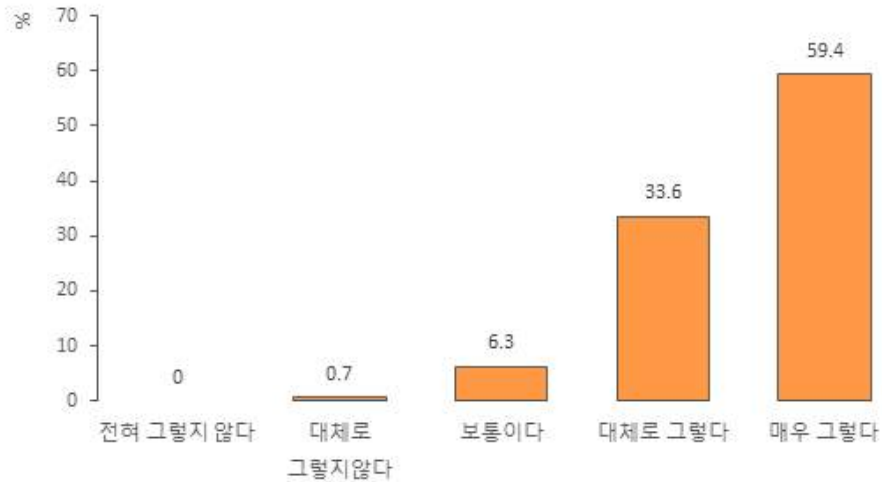


그림 32 강좌 종합 평가

(2) 강사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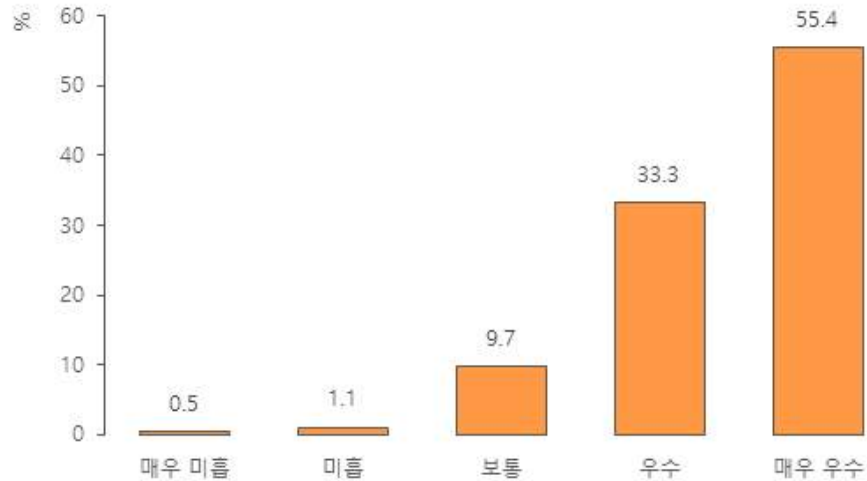


그림 33 강사 종합 평가

2021년 강사의 전문지식, 강의 전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만족도는 우수하다('우수'와 '매우 우수')는 의견이 88.7%로 미흡하다는('매우 미흡'과 '미흡') 의견보다 87.1%p 높았다. 세부적으로 통보리 아카데미 교육의 강사 종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우수하다('우수'와 '매우 우수')고 응답한 비율은 87.6%인 반면, 통통 열린강좌의 강사 종합 만족도에서 우수하다고 응답

한 비율은 91.2%로 3.6%p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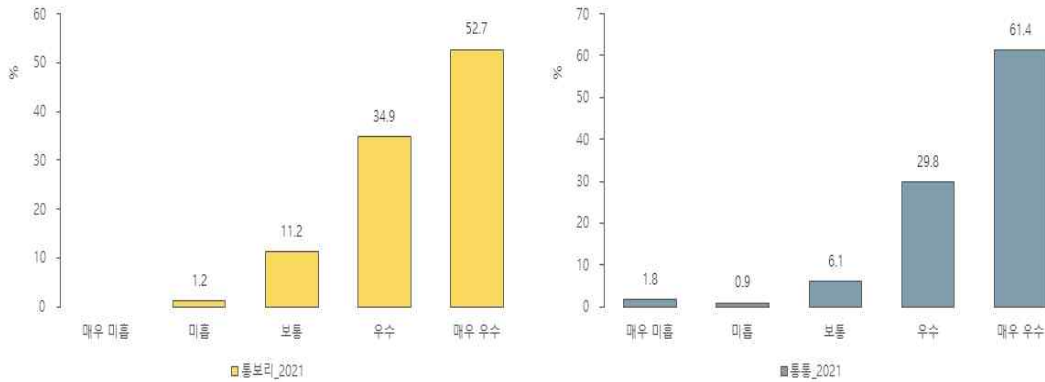


그림 34 강좌별 강사 종합 만족도

6) 강좌 홍보

만족도평가 항목 중 ‘본 강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질문은 중복선택이 가능하며 추후 강좌 홍보에 참고하기 위해 ‘기타’ 선택지의 경우, 자세한 기입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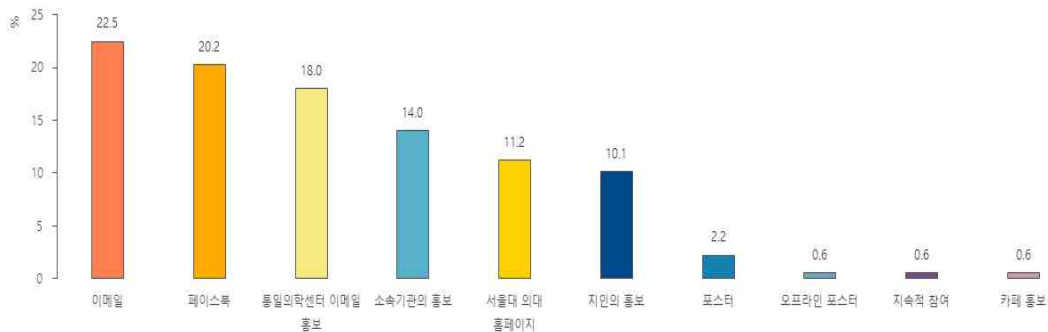


그림 35 강좌 홍보

응답 분포는 이메일(22.5%), 페이스북(20.2%), 통일의학센터 이메일 홍보(18.0%), 소속기관의 홍보(14.0%), 서울대 의대 홈페이지(11.2%), 지인의 홍보(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포스터, 오프라인 포스터, 지속적 참여, 카페 홍보를 통해 참여한 경우는 0.6~2.2%로 낮게 조사되었다.

7) 강좌 기참여 여부

만족도평가 항목 중 ‘과거 통일의학센터의 행사에 참여하셨던 강좌/세미나/

학회심포지엄 등의 행사가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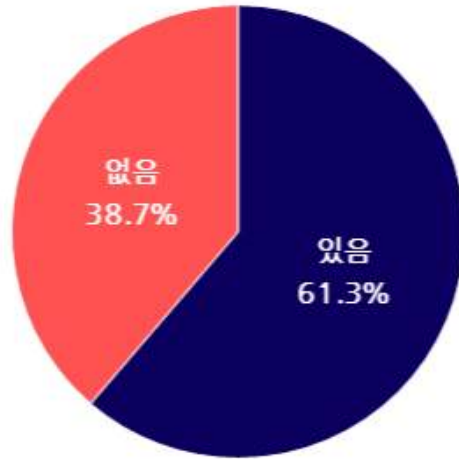


그림 36 통일의학센터 강좌 기참여 여부

과거 통일의학센터 강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1.3%였으며, 참여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38.7% 였다. 통일의학센터의 행사에 참여했다는 의견 중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준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통보리 아카데미, 통통 열린강좌, 심포지엄, 2회 이상의 행사 참여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8) 비대면 강의 시 추천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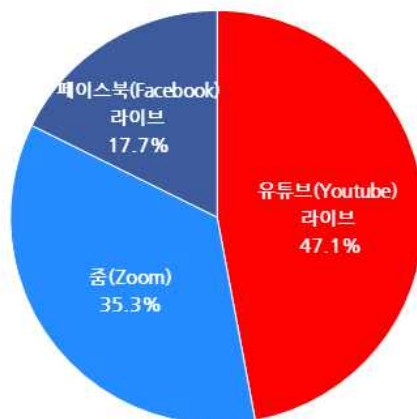


그림 37 비대면 강의 시 추천 매체

추후 열린강좌 및 아카데미의 비대면 강의 진행 시 추천하는 매체는 유튜브(47.1%), 줌(35.3%), 페이스북(17.7%) 순이었으며, 비대면 강의 진행 시 선호하는 매체는 유튜브로 나타났다.

2. 통일의료 교육 정성평가: 강좌 장단점, 논의 등

1) 장점: 도움되는 측면

다음의 표는 2021 아카데미 1주차 강의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본 강좌의 어떤 측면이 가장 도움 되었습니까?’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p>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영양 부분 등까지, 북한의 보건 의료 분야를 폭넓게 배우고 사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적절한 교육환경으로 교육의 질적 측면에 기여하였습니다. - 북한에 대한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의료보건시스템에 대해 재고해보게 되었습니다. - 강의할 때 자료 화면이 함께 공유됨에 따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 분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점이 좋았고,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최근 현실의 정보를 가장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분석해서 강연해주시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실제 현업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북한의 상황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대학생 입장에서, 북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표 8 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장점

2) 단점: 교육 개선사항

다음의 표는 2021 아카데미 1주차 강의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본 강좌 또는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p>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없지만 대면강의를 희망합니다. - 추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매끄러운 진행뿐만 아니라 강의를 제공해주신 강사님과 연구원님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으로 접속이 원활하였으면 합니다. - 라이브 시 화면 화질 저하가 될 때가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글씨가 잘 안 읽힐 때가 많았습니다. 강의자료를 사전에 공유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지만 모바일 시청 환경도 고려하셔서 프레젠테이션에 너무 작은 글씨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문자로 강좌 전 알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금 더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도 좋지만 그 전에 수업에 대한 목차를 제시하고, 해당 목차를 보고 각 참여자들이 궁금한 점들을 구글폼등으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수합한 내용을 강의 내용에 포함한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향후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다시보기 할 때 속도조절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말이 너무 느리셔서요.

표 9 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단점

3) 논의사항

논의사항은 응답자가 아카데미 1주차 3개 세션의 강의 중 2개 세션 이상에 참여했다는 증빙을 위해 강의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구성한 섹션으로, 수강자들은 해당 3개의 질문 중 2개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수료 기준을 충족한다.

(1) ‘세션 1’ 응답 내역

다음의 표는 2021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관식 질문 및 발췌한 일부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질문내용	
<p>(세션 1) 남북한이 접경지역 부근에 '생명보건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는 건설을 한다면 어떤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p>	
강좌명	수강자의견
<p>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이 접경지역 부근에 생명보건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p>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p>	<p>미래 통일한국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대에 설치한다는 점은 추후 통일 뒤를 생각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필요 시설로는 장기적 보전을 위한 시설 및 연구시설을 추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세션을 통해 북한에 대한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의료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재고해보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접경지역 부근에 '생명보건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든다는 가정이 있다면 찬성합니다. 건설을 한다면 접경지대의 동물과 식물에 대한 야생동물 및 멸종희귀 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남북한 접경지역 부근에 생명보건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입니다. 증상만으로 진단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높은 의료의 질로 생명 연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남북한 접경지역에 살지 않는 지역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북한 주민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의 U헬스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첨단 의료 기술을 잘 접목하여 북한 의료 수요를 늘리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하여 북한의 방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류의 측면에서 양쪽의 유리한 자원을 활용하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천기술과 노동력의 결합을 통하여 한약재 재배시설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 의학과 공동 관심사인 침 약침 등에 대하여 침 제조 공장 약침 공동 연구소 등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찬성합니다. 접경지역 부근에 생명보건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북한의 공공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하게 된다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남한의 보건의료기술이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WHO 등 UN기구가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한국 국적자는 UN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파견되는 것도 불가능한데 종전 선언이 되기 전에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보건단지에 어떤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북측 인력의 이탈(귀화요청) 등에 대한 대처 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보건단지 건설을 한다면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수급을 위한 교육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생명보건단지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당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의미있는 남북 간의 협력과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전문가들이 모여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고, 남한의 의료상황,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실적 상호 지식 공유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남북평화와 상호발전, 통일준비를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가 주도하면 안 되고 통일보건의료학회,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	--

	<p>또는 공공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건설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생명보 건단지 건설의 목적이 기업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한반도 건강공동체 의 건강향상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기관, 숙소 및 휴식시설, 교류시설, 교육기관, 청년스타트업 단지, 남북협력기업 (공기업),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 등)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건단지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중단기적인 설립 계획과 운영계획 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국외 의료봉사 를 가게 되면 초기에는 가시적인 문제점들을 접근하여 우선적 해결 문제들을 초점을 두게 되지만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시에는 교육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그리고 남북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생명보건단지를 시작으로 남북 보건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극 찬성합니다. 강의 내용에도 있듯이 DMZ 가 생명공간으로 전환 되어 대립의 장소가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의 변화이 필요합니다. 북측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연수를 통해 열악한 의료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단순한 물적지원을 넘는 의료관련 술기의 전수는 남북 의료진들간의 개별적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및 의료 전반에 걸친 술기교육센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설비 및 의약품개발, 의생명공동연구는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튼튼한 기반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건설에 동의를 합니다. 제시해주신 구상안대로 이루어진다면 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인 우리 나라 상태와 북한의 핵문제와 북정부의 관심이 어디있느냐에 따라 협력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며, 논의도 진행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접경지역에 짓게 된다면 혹여 정치적 문제로 파괴될 위험이 있기에 각자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변이 발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술을 독점하려는 것보다 그 기술을 나누고 다 함께 발 전시켜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회 의 건강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남 북이 서로의 의료를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남북공동 생명보 건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여 필수적입니다. - 찬성합니다. 통일 후 상황에 대비하고, 의료의 동질성을 어느정도 회 복할 수 있으며, 양측의 특징점을 살려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건설하는 것과 병행하여 비대 면으로 접촉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고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서 조심스러워하고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보안과 특정 회선을 통해서만 허용된 인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저는 남북한 접경지역 부근에 생명보건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 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북한의 의 료 기술을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교류가 생김으로,
--	--

	<p>통일 한국시대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는 남북한 모두 비슷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질병들이 두 국가의 다른 지역에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로 막을 수 있는 공동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보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또 세계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연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저는 해당 공동건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보았을 때에는 부정적입니다. 우선 남북한 접경지역은 정치적인 사건에 따라 언제든지 봉쇄될 수 있는 위험지역이며, 아직 완전한 종전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위협적인 장소로 인식될 것입니다. 종전 선언 혹은 협약 후에 진행해야 하는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 생명보건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통일에 있어서 보건의료적인 제도 등을 일치하는 것도 중요할텐데, 제도나 의학적인 차이를 줄이는 중추적인 기관이 들어서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접경지역 부근에 공동으로 건설한 예시로 덴마크-스웨덴 등이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주변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된다면 R&D보다는 임상 분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주민이 모여서 비슷한 의료를 받는 현상은 인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 생명보건단지 건설은 통일의료 및 간호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의 경우 여러 군사시설들도 배치되어 있어 양측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위치를 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활동 사정을 알고, 함께 의료 및 간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2) ‘세션 2’ 응답 내역

다음의 표는 2021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관식 질문 및 발췌한 일부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질 문 내 용	
<p>(세션2) 통일에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통일비용'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신 통일 후 사회적 비용 증가를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임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한반도의 식량안보를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강 좌 명	수 강 자 의 견

<p>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중요시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충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있기 보다는, 인류애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싶으며, 소중한 생명들이 현재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는 남한의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식량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더 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식량 안보'로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단순히 북쪽의 주민을 돕는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UN 대북제재가 있는 만큼 국제적인 상황도 고려해 지원하고 추후 남북미 관계를 살펴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 매우 반대합니다. 통일 후 사회적 비용에서 식량안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농업을 전공하는 제가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북한을 걱정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현재의 국민 정서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의료인은 국민들의 생각을 정치적 행동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장 먼저 북한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만큼 투명하게 진행되고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선에서 지원되길 바라며 대기업이나 다른 후원자를통해 후원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도 세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통일 찬성파로서, 기본적인 것이라면 식량안보 내지는 건강안보로까지 확장되는 북한에의 보건의료 원조는 통일이라는 근원적인 목표로의 수단이므로 소모적이기보다는 투자적 성격의 비용이고(완전한 통일을 위한 수단), 행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인도주의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항상 (비유하자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내재하므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사회불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본 세션에서 소개되었던 "남북 교류 협력"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 지역별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북한에 통째로 식량을 제공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제공하는 등 식량분배를 관리하여 지역적 영양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 북한은 인구의 상당수가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 어느 정도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국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들이 마련된다면 남북한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	---

	<p>이라는 생각이 듭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생각한다면 필수적임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식량 지원을 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수님께서 예시로 드신 것과 같이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안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적인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한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기면 미래세대가 통일 후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식량안보를 위한 지원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통일 비용에 대한 정의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식량 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동서독이 통일 되기 전에는 그 개념 설정도 어려웠고 액수의 산출도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서 남북한의 통일 비용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고, 또 그 액수는 그 비용을 예측하는 미국과 그 외의 우리 주변 국가들 및 그 국가들의 기관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라 함은 남북의 양측의 소득이 서로 비슷해질 때까지 잘사는 쪽에서 못사는 쪽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말합니다. 즉,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 사회적인 통일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우월한 쪽에서 그렇지 못한 쪽에 돈을 주는 것이지요. 그 것을 간과하면 남북 예멘처럼 통일을 해도 다시 분단되고 말 위험이 있지요. - 저는 식량안보를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생산시설을 통한 부가가치 등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위협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먹거리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 모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북한 지원 자체는 장기적인 남북협력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처럼 쌀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가난한 지역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분유라든가 이유식 공산품, 각종 선식 등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배분되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상황등을 고려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지속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 편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크다는 구체적 자료나 통일 독일의 예를 제시한 납득할만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북한 지원이 왜 비효율적이었는가 하는 솔직한 사과도 있어야 겠고요. 북한에 대한 연구가 보이기 위한 것인지 추측으로만 하는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필요로 합니다. 통일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왜 온 것인지에 대한 자체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면 적극
--	--

	<p>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사업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비용은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을 고려하고 있고, 되어야만 온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통일비용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식량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체계만 확인할 수 있게 북한과 협의가 된다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남북한 통일비용은 장기간동안 수천조가 투입되어도 수면위의 자립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칠 것이고, 수면아래에 숨겨진 사회전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 전 부터 물적 인적교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북측의 심각한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애의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무상 식량 지원을 지속하더라도 북측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견비되어야 합니다.
--	--

(3) ‘세션 3’ 응답 내역

다음의 표는 2021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관식 질문 및 발췌한 일부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질 문 내 용	
<p>(세션3) 강의 내용 중,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만성영양 및 급성 영양불량에서 지역적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내 건강 지표상 지역적 불평등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유로운 생각을 들려주세요.</p>	
강 좌 명	수 강 자 의 견
<p>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영양불균형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하고 식량 문제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역적 식산업 시스템의 고착 및 식품영양 산업이 안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만성영양 및 급성 영양불량에서 지역적 불평등을 확인했다는 것은 북한내 지역적 경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도 어느정도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부유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키 크기 시술 및 각종 바디 관리 시술 등을 받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형태만 다를 뿐 어느 나라나 지역적 빈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에서 강제로 주민의 이주를 막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되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중요한 도시가 아니면 식량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취약한 계층이 영향을 받기 쉬울텐데 영유아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

	<p>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이슈인데 어린이용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이유식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건 어떤지 궁금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양에도 지역 불평등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통일 후 이를 고려하여 지방에 먼저 긴급구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정확한 북한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니 통일 전후로도 계속 데이터의 정확한 수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북측의 지역적 불평등은 영양뿐만 아니라 경제 및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고, 이는 특정 지역 특권 계층에만 지원이 유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영유아 영양결핍의 지역격차는 대북한 식량지원을 통해 열악한 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북측의 협조를 얻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역적 불평등은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북한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만성영양 및 급성영양불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량안보와 대북지원에 대해 강의해주신 것처럼 그 대책이 쉽게 결정되지 않기에 고민과 여러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북한 내 건강 지표상 지역간 불평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행정구역 구성이 우리와 다르다는 부분과 북한이 과거부터 식량을 배급하는 사회였다는 것과 대외적으로는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장기간의 제재 국면 그리고 식량난을 통해서 볼 때 지역 간 불평등, 불균형은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 2007년에 개성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의주까지 연결되는 1번 국도로 가고 보여준 길이 비포장도로인 것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위층이고, 지방과는 차이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남측과 마찬가지로 북측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지방분권화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영양불균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영양불균형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보건소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진행할 때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추려낼 때 이러한 지역적 건강불평등 조사 결과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건강 지표의 지역적 불평등 개인적으로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대비 수도권에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외곽쪽으로 멀어질수록 의료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불가피하지만 충분히 완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집중된 문제는 영유아의 영양 불량 문제인데, 이것은 식량 부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북한 내에 일정한 식량 보급은 어렵더라도 지표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제공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지역적 불평등은 건강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보입니다. 특히, 비교적 발달한 평양과 다른 지역 간의 지역 격차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때문에, 북한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평양 위주로의 개발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산업 시설 및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를 다른 도시 및 지역에 발달시킴으로써 그 전반적인 지표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나아진다면 건강 지표 또한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야말로 북한의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 이후의 간호목표를 수립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불평등이 심해진다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는 간호 활동을 수행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	--

3. 추후 강의 주제

다음의 표는 2021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질문은 ‘추후 수강을 원하는 강의 주제가 있다면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의료와 연관되어 강의 주제가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남북 관광교류와 협력에 관한 강의를 원합니다. - 북한 보건의료와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강의를 원합니다. - 북한과 남한의 일반적인 교류 실태와 고려의학의 현황, 기존 보건의료 남북 교류 역사 및 방안이 궁금합니다. - 북한의 감염병관리 현황과 김정은 시대의 의료시스템의 변화요. - 대북제재 기원과 해제의 조건, 세계 각국의 입장, 보건의료인의 입장에 대한 강의 요청드립니다. - 인구학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 개설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민(새터민)이 전하는 북한 보건과 의료의 실태와 개선점 주제 강의를 원합니다.

표 10 2021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추후 기획

Ⅲ. 통일의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1. 사업 성과

1) 사업 전반의 성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2012년 개소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꾸준히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오며 따라 관련 노하우를 쌓고 일반 대중 및 전문가들의 통일의료 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의 경우, 통일의료 지식의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으로써 일반 대중, 예비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및 통일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의 경우, 단순히 강의를 제공하던 기존의 타 기관들에서 이뤄졌던 일반적인 교육 강좌 방식에서 벗어나, 수강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라이브 방송 이후 만족도 평가를 통해 실제 수강자들의 생각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 발표로 ‘통일의료 HRD - 통일의학센터 인적자원개발 10년의 기록’이란 주제로 소개하고 자유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 사업을 통해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및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업로드함에 따라 관심이 없던 대중들의 자연스러운 통일의료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관련 분야 강의를 부재했던 현실 속에서 본 사업비 지원으로, 대중들에게 무료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남북한 및 통일의료 분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진 부족 상황에서 강사진 및 신진연구자 DB 구축에 큰 역할을 해왔다.

위와 같은 성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월간 뉴스레터로 발행하는 ‘함춘인사이드’에 열린강좌 및 아카데미의 주제로 관련 기사 홍보가 이뤄졌으며, 구독자 대상 발송의 일간 뉴스레터인 연합뉴스 프리미엄 북한뉴스 ‘한반도&’의 北Cafe란에 통일의학센터 유튜브에 업로드한 ‘2021 통보리 아카데미 영상’이 기사로 홍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10년의 기록을 바탕으로, 2021년 2월에는 단행본 『통일의료 HRD - 통일의학센터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 출간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교육 사업 전반을 정리함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

2) 관련 분야 기여도

(1) 한반도 생명공동체 기반을 위한 통일의료 국민공감대 형성의 초석
통일의학센터에서 수행한 열린강좌 및 아카데미 영상을 편집하여 페이스북 및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관심이 없거나 배경 지식이 전무한 대중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통일의료를 주제로 결집된 이들에게 관련 강의가 부재한 현실 속에서 비용 부담없이 전문 강의 제공이 가능했다. 또한, 정치적인 환경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보건의료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의료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미리 경험해보는 주제를 통해 광범위하고 융복합적인 통일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사회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생명공동체 기반 마련에 있어 핵심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차세대 의료인,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민간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의료 전문 인재로서의 성장과 진로 탐색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통일의료 전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남북 보건의료협력 및 통일의료 분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건의료에 국한되지 않은 강사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범분야적 주제 선정으로 예비 의료인과 연구자, 실무자가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통일 이후 남북 보건의료 통합 정책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 진행 및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였다.

2. 사업 평가

1) 사업 전반의 평가

(1) 사업의 적절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존 만족도평가에서 수렴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 전략 구상을 통해 열린강좌와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강의 전달 방식과 콘텐츠를 차별화하였다.

(2) 사업의 효율성

전반적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각 매체별 뉴스레터에의 기사 홍보와 유튜브 영상 업로드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이끌었다.

(3) 사업의 영향력

사업 목표에 맞춰 온택트 상황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니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까지 확장하여 사업 전개가 가능했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통일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 사업의 발전가능성

분야별 주제 기획에 따라, 일반 대중부터 전문가 집단까지 통일의료 이슈에 접근 가능한 루트를 생성하여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 장기적인 시각의 관련 분야 연구를 가능케하였다.

2) 사업 한계 및 보완점

남북관계 단절에 따라, 통일의료 주니어 또는 차세대 전문가와 전문 강사진 부족으로 일부 주제에 대한 기획에 난항을 겪었으며, 좀 더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 강사 섭외 및 발굴, 강좌 기획과 논문 DB 구축 등 연구를 위한 많은 시간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매년 예산 감소에 따라 교육 사업 기획 및 진행을 정례적으로 이어갈 사업 수행 인력 확보가 어려움과 동시에, 단발성에 그치는 교육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선 적어도 신청한 예산 정도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향후 계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국내 대학 중 통일의료 교육 및 연구를 선두에서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열린강좌 및 아카데미를 시의성 있는 주제 기획과 함께 다년간의 노하우를 살려 해당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일반 대중과 함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직능단체·전문가그룹·국제기구·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통일의료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이들이 서로의 시각차를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 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2022년도 사업 기획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통일의료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